

세제르 터키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 답사

존경하는 세제르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일행을 환대해 주신 각하와 터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
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 터키를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각하를 비롯한 터키 지도자들을 만나면서 오랜 친구처럼 반갑고 편안했
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대통령이 너무 늦게 왔다는 죄송한 마음마저 듭니다.

터키는 동서 문명의 가교로서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지금도
중동과 중앙아시아, 유럽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하께서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철저한 민주주의 신봉자로서
자유와 인권신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각하의 지도력과 국민의 저
력으로 터키가 크게 발전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통령 각하,

나는 많은 터키 국민들이 한국을 친구 이상의 형제국가로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또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각별한 나라로 생각합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우리 두 나라의 경기는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축제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양국의 우의를 과시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언어와 관습이 유사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6·25전쟁 당시 터키는 세번째로 많은 1만 5천 명의 병력을 보내 주었고 우리와 함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는 더욱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교역과 투자의 증진은 물론 문화·관광 등 인적교류도 한층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전자·IT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가속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터키의 무궁한 번영, 그리고 우리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축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